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25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가족다문화과	담당자	• 외국인생활지원팀장 김희연 ☎440-2801 • 담당자 곽세영 ☎440-280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광역시 최초 ‘다문화정책대상’ 수상 영예

-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 개발 나서 -
- 전국 최초 ‘민관협치 거버넌스(32개 기관) 지원단’ 조성 등 큰 성과 이뤄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8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다문화정책대상’은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을 평가하여 포상하고자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 인천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발맞추어, ①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모토로 여성가족부와 「글로벌 선도도시 인천 구축」을 위한 협약(‘20.11.23)을 체결하여 국가 다문화정책 선도의 기반 틀을 조성했다.

- 또한, 전국최초 민관협치 거버넌스(32개 기관)인 가족모두의 인천 ‘Love Together Network’ 지원단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5개 분야 17개 사업에 6,055백만 원(시·군비 5,500, 후원 555) 사업비 조성은 물론, 한국판 뉴딜사업을 선도하는 인천형 휴먼(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평생일자리 창출인 보육보조교사 연장반 신설, 다문화가족 및 희망계층 자녀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뉴딜 사업을 구축했다.
- 뿐만 아니라, 전국최초 대국민 인식개선(이중언어환경조성)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OBS경인TV, 지역케이블 3사)함으로써 전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함은 물론 다문화특성화사업의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다양성이 인정되고 상호 존중되는 선진 문화구축 및 환경조성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바 있다.
-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치안봉사, 통번역,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만전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 고려인 동포가 급증하고 있는 연수구 함박마을을 대상으로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용역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고려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국비 35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아울러, 외국인 주민을 위해 인천시 직영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매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및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선진적인 글로벌 다문화정책 추진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 박남춘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수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1위로 매년 약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미 다문화도시로 급격하게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천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되고 인정되는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 며, “광역시 단위 최초로 행정안전부 정책 대상을 수상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전국최초 대국민 인식개선(이중언어환경조성) 공익광고(이미지)



※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